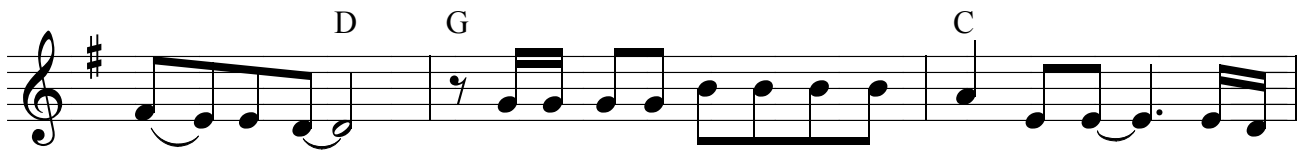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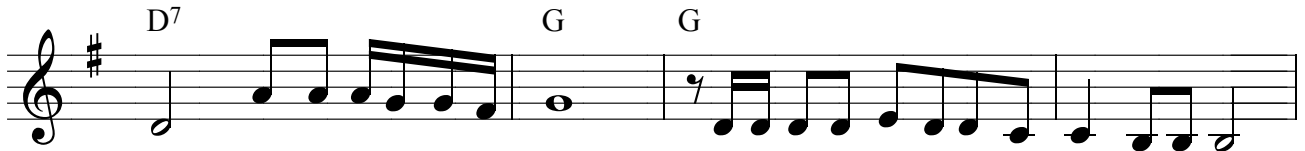
최용덕 작사, 작곡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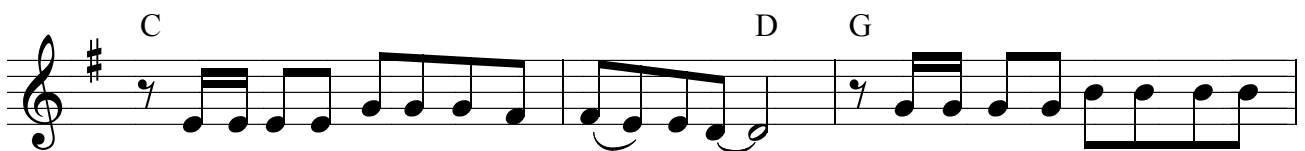
1.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- 내가 먼저 용서하지
2.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- 내가 먼저 이해하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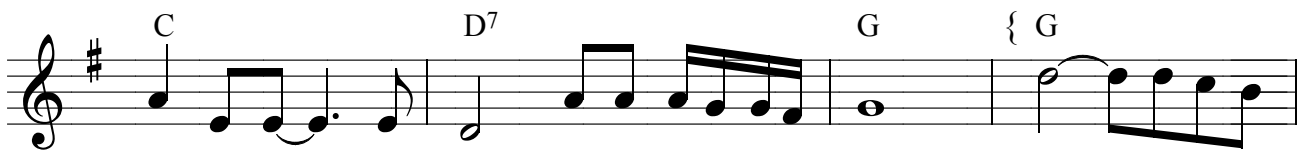
못 - 하고 -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- 이렇
못 - 하고 - 내가 먼저 높여 주지 못하고 - 이렇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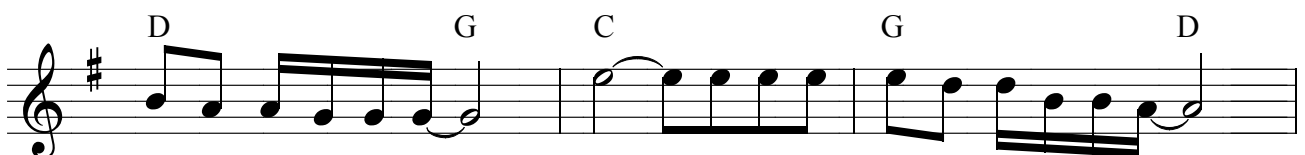
게 머뭇거리고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-
게 고집 부리고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-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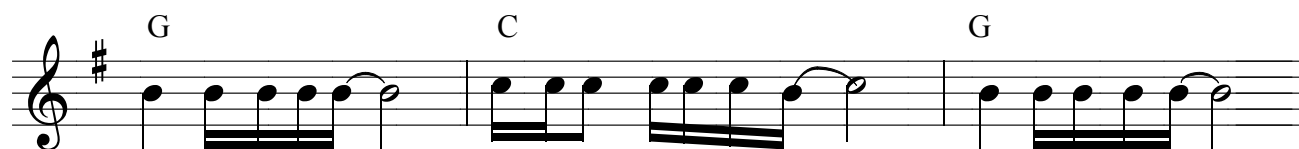
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 - 했고 - 그가 먼저 웃음 주길
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 - 했고 - 그가 먼저 높여 주길



원했네 -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- 간교한
원했네 -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- 추악한



나의 입술이여 - 오 - 교만한 나의 마음이여 -
나의 욕심이여 - 오 -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



왜 나의 입은 - 사랑을 말하면서 - 왜 나의 맘은 -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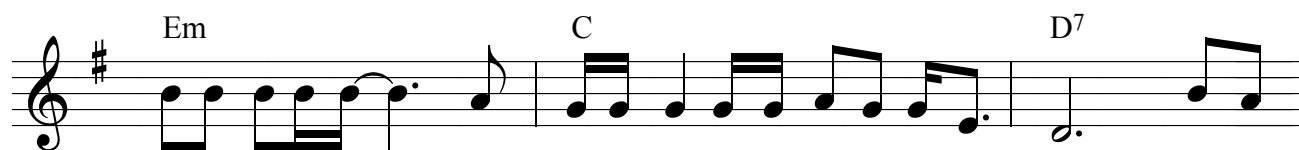
화해를 말하면서 - 왜 내가 먼저 - 저줄 수 없는가 -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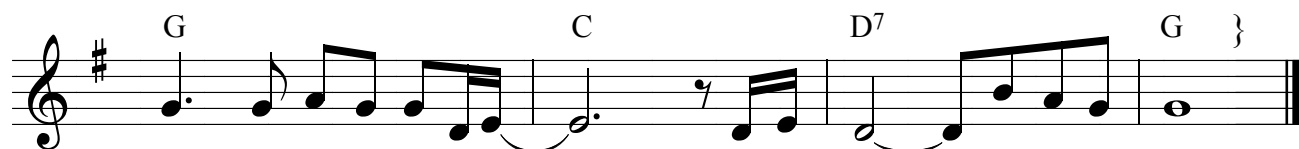
왜 내가 먼저 - 손해 볼 수 없는가 - 오 - 늘 나



는 오늘 나 - 는 주님 앞에서 -



몸 돌바 모르 - 고 이렇게 흐느끼며서 있 네 어찌



할 수 없는 이 맘을 - 주님 께 - 말 긴 채 로